

## 데뷔 후 변했다는 채원 "나 알아본 줄 알았는데"

등록 2026.06.02 16:02:36



[서울=뉴시스] 그룹 르세라핌 (사진= SBS TV 예능 프로그램 '아근진' 캡처) 2026.06.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재민 인턴 기자 = 그룹 르세라핌 채원이 유명세를 얻고 변한 멤버로 자신을 꼽았다.

르세라핌은 1일 방송된 SBS TV 예능 프로그램 '아니 근데 진짜!'에 게스트로 출연했다. MC 탁재훈이 "이 정도 관심과 인기를 받는데 그럼 '나는 좀 변했다' 하는 사람 손들어봐라"라고 했다.

채원은 망설이다가 손을 들고 한 일화를 공개했다.

채원은 "(멤버들과) 다 같이 식당에 간 적이 있다. 저희끼리 밥을 먹고 있었는데 (다른 손님이) 저를 자꾸 쳐다보더라"고 말했다.

그는 "나를 무조건 알아봤다고 생각했다"며 "어떡하지, 사인이라도 해드려야 하나 고민했다" 고 했다.

그러면서 "알고 보니 자기 뒤에 메뉴판이 있더라"며 웃음을 자아냈다.

MC 이수지는 "정확하게 지난주에 내가 그랬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날 강남 고속터미널 인근을 걷고 있었다. 어떤 할아버지가 무조건 나만 보고 걸어오더라"고 말했다.

이어 "어르신이 알아보는 건 진짜 유명하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이수지는 유명인인 척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상황을 재연했다.

그러자 그는 "어르신이 나한테 와서 '여기 부산 가는 데가 어딥니까' 라고 묻더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ane1014@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